

Ⅰ 제9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Ⅰ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16:00~18:00

장소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교육실


서울노동권익센터

I·SEOUL·U

프로그램 안내

사회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시간	주요 내용
16:00~16:10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6:10~16:40 (30분)	발표 :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16:40~17:20 (40분)	토론 : 강 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 남우근 (공인노무사)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
17:20~18:00 (40분)	청중 토론, 질의/응답
18:00	폐회

목 차

발제문 :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류한승,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1
토론문 :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	31
토론문 : (남우근, 공인노무사)	37
첨부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2016년도 사업평가	42

발 제 문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류한승(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이 철(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내용 요약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개소한 이동노동자쉼터가 운영 1주년을 경과하였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연계된 이동노동이 기존 노동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확대되고 있음. 기존의 산업노동관계와 달리 노동시간과 장소, 임금이 개별화하고, 종속성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중개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는 증가함. 그 결과 이들은 일반노동자보다 장시간 일하거나 실시간 경쟁, 항시대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자영업적 독립성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플랫폼에 연계된 이동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보호의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3월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가 개소하면서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상담과 교육 등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센터 역할을 해왔음. 2017년 2월 장교동에 두 번째 쉼터가 개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노동자 지원 쉼터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에 의한 플랫폼노동이 늘어나고 특히 ‘유목적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동노동 종사자의 영역과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도 단순 휴게공간보다 종합적 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대상을 이동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과, 그에 맞춰 이동노동자들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쉼터를 기반으로 이동노동자들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괄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음.

I. 들어가며 : 토론의 취지

- 운영 1년을 경과한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의 평가와 모색
 -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2016.3.18. 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대리기사 당사자의 호응과 여론의 환기가 이루어졌으며 2017.2.27 장교동 쉼터 개소로 이어졌음.
 - 창원시가 2017.3.8. ‘창원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에서도 문의 및 방문하는 등 ‘서울시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상황임.
- 쉼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각계 의견수렴의 계기 마련
 -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등 순기능을 하였으며 이용자들 및 당사자단체에서는 특수고용 형태인 이동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기능 등도 바라고 있음.
 - 최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이동노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동노동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서울시가 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상영역의 확대와 필요한 지원기능의 탑재에 대해 검토하고, 쉼터의 역할과 이용자의 욕구파악,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글에서는 우선 디지털 기술과 이동노동의 결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고용관계의 특징과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임. 다음으로 이러한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쉼터가 고려해야 할 지원대상과 영역, 지원센터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함.

II. 디지털 기술과 노동의 변화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이동노동 종사자 증가

-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택시를 호출하는 것은 더 이상

낮선 광경이 아님. 최근에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세차를 할 때, 또는 세탁물을 맡기거나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도 스마트폰 앱이 이용되고 있음. 이들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는 모바일 커머스와는 조금 다름. 구매 대상이 배달, 수리, 세탁, 숙소공유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 산업사회 이후 기존의 노동시스템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업장을 특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의 집배원이나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시나 버스기사 등도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의 시작과 종료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작업의 지시와 보고, 동료들과의 만남 등이 이루어짐. 그러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동노동의 특성은 이러한 공유 공간이 없다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동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 또한 이동노동은 현대자본주의에 특성인 노동유연화의 결과¹⁾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이동노동 종사자들은 사회제도적인 안전장치에서 배제된 채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으로는 노동의 조직화도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동노동 종사자들은 일뿐만 아니라 권리조차도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상태인 것임.
-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 방식이 많이 발견됨. 소위 디지털 특고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며,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세탁, 헤어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등 여러 분야에 나타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은 이동노동 종사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용어정리

-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2008년 로렌스 레식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상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서로 빌려 쓰는 것을 말함. 빌린다는 개념 때문에 공유경제와 대여업이 비슷해 보이지만,

1)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고용 형태들은 그 고용 형태 간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축성(유연성)’이 그 모두에 내재된 핵심 특성이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부상하는 이유는 고용자 측에서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에서 한층 증대된 신축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대표적인 기업들로 자동차와 주택을 빌려주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빌려주는 물건의 범위가 자전거, 애완동물, 보트, 악기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공유경제 확산에서 우버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유대상의 확대를 Uberf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며, X라는 분야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Uber for X 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함.

-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주문형 경제도 공유경제와 비슷한 개념인데, 소비자가 원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개념임. 운수 서비스를 즉각 제공하는 우버가 대표적이며, 주문형 법률서비스, 주문형 청소서비스, 주문형 뷰티서비스 등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음. 주로 서비스업에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킥 경제(Gig Economy):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다들 바 없다는 점을 우려하여 나타난 표현임. 킥 경제는 O2O서비스 제공자들의 불안한 노동 환경이 이합집산을 자주하는 악단(gig)과 비슷하다는 인식아래 만들어진 표현임. 킥 경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말함.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임시직이 급증하고 있음.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음. 상담직,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각종 맞춤형 직업 등이 킥 경제에 포함됨.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이 되면 이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전체 직업의 4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해서 중개되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크라우드 노동(crowd work)와 주문형 앱노동의 두 유형으로 나뉨짐.
- 크라우드 노동: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함. Amazon Mechanical Turk 등이 대표적임
- 주문형 앱노동(on-demand work via app):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함. 대리운전 서비스나 우버 등
- 이동노동 종사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수리, 간병인, 가사도우미, 학습지 등 업무가 특정한 장소가 아닌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군을 의미함

1.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 기존의 산업노동관계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에 협력하는 하나의 노동공동체를 상정함. 이 노동공동체는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장소, 그리고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등 집단적 척도를 가짐. 노동자들은 이렇게 집단적 척도에 의해서 구성된 노동공동체를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함. 노동자들의 노동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율적 노동임.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해짐. 사용자는 지시권과 징계권을 통해 노동과정을 관리함(황덕순 외, 2016).
- 반면 디지털 노동관계는 노동공동체를 해체하고 각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함. 집단적 척도는 개별적 척도로 대체됨. 노동시간, 노동장소, 임금은 개별화됨. 디지털 사회의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도 함. 다만 그 선택에 따라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과정과 결과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성과급이나 재계약 등 평가에 따른 제재는 징계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의 적용으로 이해됨. 최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동자는 스스로 최적의 노동이행경로를 찾아내고 최적의 자원 분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함(황덕순 외, 2016).
- 산업노동관계의 과정관리 경영담론이 인간의 노동을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분화했다면, 디지털 노동관계의 목표관리 경영담론에서는 과거 구상노동으로 분류되었던 지식노동 자체가 다시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분화됨. 표준화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표준화된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더 이상 진정한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실행 지식을 단순반복하는 단순노동자로 전락함(황덕순 외, 2016).
- 관계적인 노동 환경 내에서, 사용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매 순간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이런 장치들은 종종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소개되

고 있음. 그러나 그것의 목적과 효과는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임. 이러한 증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작업장 안팎에서 늘어난 감시와 노동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아이러니하게도 ‘건강’ 추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노동력을 양산할 수 있음, 아마존(Amazon.com) 창고에서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됨(이철, 2017).

- 이러한 ‘디지털 테일러리즘(digital Taylorism)’의 결과는 작업장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것임.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동안만 노동의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간을 벗어나면 다른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했음. 그러나 디지털 사회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면서 노동자는 깨어 있는 내내 항시 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고 그 결과 노동의 비인간화는 상시적으로 진행됨(황덕순 외, 2016; 이철, 2017).

2.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변화

- 항시대기, 실시간 경쟁, 접속
- 일자리 대부분이 탄력적 일정으로 주어지며,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음. 노동자 간 경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도 하면서 보상수준을 지나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질소득을 얻기 위해 장시간 일하면서 유연성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 일거리가 특정시간에 게시되거나 수행되도록 요구되면서 개인은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한되기도 함. 건강보험, 연금제도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주로 사용자에 의해 정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기타 노동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에서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사회적 혜택과 보호에서 제외될 위험이 큼(황덕순 외, 2016).
- AMT(와 여타 유사한 클라우드 고용 플랫폼)은 노동의 질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 그것은 노동자들이 따분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할당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사회보장도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불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함.
- 플랫폼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노동표준을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비가시적이고 원격에 위치하게 만듦으로써 기업들이 도덕적 책임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일을 초래함. 베르그발-카레본(B. Bergvall-Kåreborn)과 하우크로프트(D. Howcroft)는 AMT를 “노동력을 포섭하고 배제하기 위해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로 보고 있음. 바꿔 말하자면, 그것은 착취와 이윤을 의미함(이철, 2017).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유급노동을 촉진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유급노동이 추구되어야 할 주요 목표임. 이들은 노동이 실업에 대한 대안이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이 사람들에게 “자존감, 공동체, 사회 참여, 건강 가치, 구조, 존엄성 등 수많은 중요한 것을 얻는 주된 방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유익하다”고 정당화함.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유급노동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함. 특히,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불안정·임시·집약적·저임금 노동의 성장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무시하고 있음. 각 경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플랫폼 노동)은 유급노동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할 가능성이 큼(이철, 2017).

3. 디지털 특고의 확산: 이동노동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²⁾

- 한국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플랫폼 노동에 따라 임금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 부를 수 있음.
- 디지털 특고는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은 단말기 혹은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과 연계되고, 플랫폼은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
- 한국의 플랫폼 노동은 프로그램 업체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관리해주는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고,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이 대부분 대면서비스 혹은 개인 서비스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동/방문 노동과 결합하기도 함.

2) 이 부분은 황덕순 외(2016)의 제3장을 참조, 요약한 것임.

<2015년 현재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직종별 특수고용 규모 추정치>

직종	노동자 중 특수고용	자영업자 중 특수고용	특수고용 합계
자동차운전원(물류, 화물, 레미콘, 덤프, 학원, 펌프 카, 대리운전 등)	80,683	429,325	510,008
배달원(택배, 퀵, 배달기사 등)	62,172	64,211	126,38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69,428	179,285	248,713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카드모집, 대출상담, 채권추심)	22,218	2,306	24,524
영업종사자(자동차, 신문광고, 상조, 보험모집인 등)	398,278	81,697	479,976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간병인)	34,262	1,870	36,132
간호사	3,426		3,426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A/S 기사)	4,814	21,092	25,906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검침원)	1,963	3,296	5,259

조돈문 외(2016: 63-68)

-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 노동도 증가하고 있음. 배달의 민족 등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 중개 프로그램의 영향이 큼.
- 대리운전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플랫폼 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해서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 노동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휴대전화나 초보적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때 특고가 늘어났고 기술발전 에 따라 본격적인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됨.
- 이러한 디지털 특고에 대한 관리와 통제 능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려움.
- 대리운전기사나 배달원의 종속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³⁾ 중개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능력은 커지고 있음. 특히, 고객에게 늦게 도착하거

나 콜을 취소하는 상황의 경우 더욱 그러함. 물론 다른 플랫폼노동에서 고객의 평가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측면도 있음.

- 한국에서 디지털 특고는 앱노동은 대리, 퀵, 배달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노동자보다 장시간 일하고 있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대기시간이 있으나 이 시간은 자유시간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이들의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4.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필요

: 새로운 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

- 공유경제, 직경제, O2O경제, 플랫폼경제에 기반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개인 사업자의 신분이지만, 실상은 기업에 종속된 노동자나 다를 바 없음.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 즉, 법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건과 서비스 제공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해 주고 있음.
- 가짜 영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 즉 법적 서류에서는 자영업자이나, 실제 하는 일은 노동자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권리를 찾아줘야 함.
-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는 현

3)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종속성의 경우,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 결정, 업무 수행 방법이나 내용 결정, 업무수행 과정의 지시와 감독, 사용업체의 일상적 업무 개입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종속성을 보임. 이러한 낮은 사용종속성은 대리운전기사의 자영업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사용업체 대신 고객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콜 수신기와 프로그램의 구입 및 수리보전 비용을 부담하고, 업무 개시를 위해 콜 수수료 인출을 위한 보증금을 투자하도록 하면서 경제종속성을 낮추게 됨. 퀵서비스의 경우도 비슷함. 퀵서비스기사의 낮은 종속성은 고객에 의한 노동과정 통제 방식과 사용업체에 의해 강제된 작업수단 구입 및 초기 자본투자의 결과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름(조돈문 외, 2016).

한편, 이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디지털 특고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신체보다는 신호에 반응하는 신체가 되어가고 있다. 외견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띠고 있지만 디지털 특고는 성과와 관련된 숫자, 성과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함.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상하기보다는 구상하기가 허용되지 않고 실행만 함.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라고 함(황덕순 외, 2016).

재의 보호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야 보험의 범주에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님.

- 새로운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보호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보편주의 방향이 정답일 것임.

Ⅲ. 서울시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및 운영 경과

1. 이동노동자쉼터 추진배경과 경과

○ 추진배경 및 경과

- 2015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추진
- 2015.7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수행
- 2015.8~12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쉼터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조율 및 사업 추진
- 2016.3.18.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서초, 1호점) 개소
- 2017.2.27.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장교동 쉼터) 시범운영
- 합정동 쉼터(3호점) 개소 준비

○ 쉼터 추진 방향

- 이동노동 종사자들의 접근성과 공간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쉼터
- 이동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상담·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보하고 서울시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 지원센터 기능 확보
- 이동노동 종사자들의 당사자 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권익개선 활동 촉진

○ 간이 휴게공간 내지 지원기능에 대한 검토

-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산업적 문제해결 요구가 높고 상담교육 서비스 수요가 많아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적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함.
- 프랜차이즈업체 제휴 : MOU 체결해도 적용범위가 직영점으로 제한되고 음료비용 지원 시 개별 지원의 문제점과 비용부담 발생.
- 이어쉼(이동 여성근로자 쉼터) 사례로 볼 때, 서울시 18개 지역에 공간을 개설했으나 참여가 저조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음. 당사자 참여 프로그램과 운영인력이 배치되어야 실제 기능이 가능함.

○ 컴퓨터 운영 및 인력에 대한 검토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직영 운영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업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단체들과 협력적 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 전달.
- 프로그램 운영, 심야 안전 고려하여 최소 2인 근무제, 이용자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 고려한 위치 선정, 휴게실·교육장·상담실 포함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간.

2. 이동노동자쉼터(서초동) 1년 운영경과

○ 컴퓨터 운영개요

- 운영시간 : 월요일 18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주5일 운영

구분	운영시간 18:00 ~ 06:00
근무자 A	16:30 ~ 24:30 (주 40h)
근무자 B	22:00 ~ 06:00 (주 40h)
근무자 C	24:30~06:00 (주 30h)

- 2016년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서초동) 이용자수 추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용자수	315	702	735	1,040	958	1,061	874	1,070	1,334	1,332
일 평균	35	35	37	50	46	48	46	54	60	60.5

○ 시설 운영 및 협력사업

- 주중 쉼터 대관 : 이동노동자 단체/개인 대상. 2016년 총 54회
- 대리운전기사 직무/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추진
- 환경개선과 편의제공 : 여성휴게실 별도설치 (2016.8) 수도권 대형지도 부착, 우산대여 서비스 (2016.8)

○ 상담 및 교육사업

- 상근자 기초상담과 영역별 전문상담 주1회 운영 : 금융복지, 법률, 주거복지, 건강검진
- 인문학 산책, 전직 교육, 직무매뉴얼 제작 + 시범교육, 공모전
- 2016년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서초동) 상담·교육 결과

구분	진행 횟수	전문가	예약자 수	참가자 수
금융복지상담	7회	2명	79	41
건강검진 및 교실	8회	2명	63	57
법률상담	6회	1명	34	21
주거복지상담	3회	1명	20	16
주거복지 교육	3회	1명	31	33
인문학 산책 (야유회)	1회	1명	30	15

3. 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조성 경과

○ 추진 경과

- 2016.7.28. 이동쉼터 2호점 조성관련 노동정책과 협의
- 2016.11 ~ 2017.1 노동권익센터 당사자단체 준비 간담회(5회) 및 워크숍
- 2016.11.28 ~ 12.10 쉼터 이용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110부
- 2017.2.24. ~ 2.28 이동쉼터 홍보 및 시범운영
- 2017.6. 쉼터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소식 (예정)

○ 운영 개요

- 운영시간 : 월요일 8시30분부터 금요일 20시까지 주5일 운영

구분	운영시간 08:30 ~ 20:00	
근무자 A	08:30 ~ 17:30 (주 40h)	
근무자 B	11:30 ~ 20:00 (주 40h)	
근무자 C	16:00~20:00	

- 상담사업 : 금융복지, 주거복지, 건강검진 각 주1회 진행
- 킥서비스노동자 자가정비교실 : 필요성 높으나 장소 문제로 대안 모색 중

4.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논의

- 인력과 예산운용
- 네트워크 구성 및 주간활용방안 논의
- 이동쉼터 3호점(합정동) 준비

IV. 이동노동자쉼터 평가와 이후 전망

1. 지자체 최초 쉼터의 의미

- 이동노동자 지원서비스 및 자존감 향상 성과
 - 쉼터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자존감, 동료와의 교류, 상담지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 다수. 인문학산책 등 문화적 욕구 해소에 대해서도 관심 높은 편.
 - 정기적 모임/회의 등을 통해 대리기사 공동의 활동, 정책에 대한 논의
- 지자체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모델 창출
 - 서울시가 비용·효율보다 ‘인본(人本)’을 실현한 69개 대표 정책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선정 (2016년 10월)
 - 쉼터 정책의 파급효과로서 중앙정부 근로복지정책 반영 및 지방정부 벤치마킹 증가. 창원시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이외에도 경기도(교통정책 팀장등 2명, 2016년 12월 8일), 고양시, 성남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방문
 -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근로자의 근로대기 및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매칭 지원 검토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2. 단순쉼터 역할을 지양하고 거점공간을 통한 지원기능 확대 필요

-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구상과 달리 이용자는 쉼터 기능이 일차적인 것으로 수용. 여기에 당사자단체의 운영 참여가 제한되면서 장기적 전망에 바탕한 지원, 참여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위축됨.
- 서울지역 이동쉼터 설치시 높은 임대비용과 필요 인력을 고려하면 예산의 제약 때문에 수요의 확대에 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쉼터의 지원기능과 활용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예산,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이용자 수요에 대한 반응성 제고 : ex. 대리기사 직무교육 등

3. 이후 전망

- 이동노동 관련 플랫폼노동의 급격한 확산
 - 4차 산업혁명의 한갈래로 언급되는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플랫폼노동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임. 특히 고정된 장소가 아닌 ‘유목적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동노동자라고 불리는 노동의 영역이 늘어나고

고용형태도 이른바 특수고용형태로 변화되는 추세.

- 그러나 법과 행정의 규율하지 못하는 지체 상황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조건과 사회제도 모두에서 배제, 사각지대.
- 지자체 최초의 지원모델인 이동노동자쉼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쉼터의 여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 모색
- ①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이동노동자의 개념과 노동의 성격에 대한 정의, 분석, 실태조사연구가 필요. 사용종속성 측면에서 약한 인적 종속에 비해 경제적 종속 강화의 측면.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사업장 조직에도 통합되지 않음. 수입의 불안정성이 높고 독립적 시장참여자와 달리 유사한 타직종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 사회보험에서 배제 등.
 -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럽사례 인용) 노동이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적 지원조직으로 기능.
- ②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 지역노동자지원센터 (분리 운영)
 - 야간 이동노동자(대리기사) 지원센터와 주간 지역노동권익센터로 운영.
 - Ex. 강남구, 서초구는 종사자수가 인구수를 초과하거나 육박하여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 영세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층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간 노동상담과 캠페인 등 관련사업 수행기관으로 기능.

V. 이동노동자쉼터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대상: 이동노동자 전반으로 순차적 확대

- 이동노동자 지원 범위의 설정
 - 이동노동자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개념이지만 지원의 필요에 따라 어느정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플랫폼노동에 기반하여 일하는 경우 위험한 작업환경과 부실한 장비, 고객의 괴롭힘 등 부적절한 근무조건,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부족, 쉬지 못하고 장기간 일해야 하는 필요 등 일과 관련된 위험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함. 이 경우 고강도노동, 심리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공안전 및 고객보호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공적 지원 필요.

- 노동자성 판단지표상 인적 조직적 종속이 나타나지만 (위장자영인) 고정적 사업장이 아니라 이동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적절한 상담과 교육지원, 기타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포괄적 의미의 이동/방문노동자로 지역의 거점공간을 통한 활동과 이해대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동노동자 범위 관련 직종 검토

분야	직종	고용형태	지원수요	당사자단체
대면	대리기사	특고	상담, 교육, 전직지원	대리노조, 단체 등
물류	퀵서비스기사	특고	상담, 교육, 자기정비 교실, 커뮤니티 활성화 등	퀵노조, 협동조합, 등
	배달/택배기사	특고	상담,	화물, 택배연대
교육	학습지교사	특고	학습지 영업 관련 상담, 심리치유 등	학습지노조
	보험설계사	특고		사무금융
사회서비스	재가요양보호사	기간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존재)	공공 돌봄, 협회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장애인활동보조인			공공 돌봄, 활보노조
	방문설치수리기사	특고→간고	커뮤니티 공간 등	희망연대노조, 삼성서비스지회 등
	검침원			공공 서경

○ 이동노동자 지원 기능의 확대

- 이동노동자 직종과 특성에 따라 ①쉼터+ 종합지원센터 ②상담교육 ③ 커뮤니티 축진을 위한 지역거점공간으로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현재 포괄범위)	일부 직종 확대 (지원범위 확대)	포괄적 이동노동자 (맞춤형 지원)

- 1호점(대리기사), 2호점(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점진적으로 타 직종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3호점의 경우 처음부터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설계 가능.

2.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상 확립

-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
 - 2016년 시범운영 결과를 볼 때, 단순 휴게공간은 크게 의미가 없음. 이용자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혜택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확장성도 낮다고 추측됨. 콜을 많이 잡아야 하는 대리기사들이 대부분 해당 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움.
 - 해당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반한 이동노동자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기능 탑재. 직무교육과 직업역량 확충,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 (가칭)“이동노동자 권익향상사업단” 구성 추진
 - 이동노동자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적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등이 필요.
 - 서울시와 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센터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 이동노동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운영 등을 추진.
 - 예산마련 : 노동부 매칭사업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추진.
- 상근인력의 역할과 전문성 함양
 - 근무여건 개선. 자율성 신장과 역할 확대
 - 센터 채용인력과 당사자 단체 활동가 공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류/협력

3. 당사자 자율성과 역량강화

○ 운영체계의 정비

- 운영기구의 문제. 컴퓨터 운영의 자율성과 사업의 방향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운영 내지 자문기구가 구성되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토론, 집담회, 활동가 양성교육 등을 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가야 함.
- 당사자들이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성과라도, 단일 요구안 만들고 꾸준히 사회적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 표준요금, 보험 문제, 산재보험 전면 적용 문제 예컨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등

○ 이용자 자율성과 역량강화(Empowerment) 촉진

- 노동과정의 전속성이 약화되고 업무의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비롯한 사회적 연결망이 해체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연결과 자조 노력을 촉진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컴퓨터의 상담서비스는 성과와 동시에 한계도 뚜렷함. 실제 상담, 교육의 노쇼 문제로 항상적으로 불안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전직교육은 신청자 적어서 취소. 직무교육은 호응이 많은 편. 자기조직화 과정의 일환으로 상담과 교육 배치.
- 제도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직인 이동노동자들의 삶과 전망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어야 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자조적 해결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당사자단체 협력사업 및 당사자 제안사업 지원

- ‘우리 같은 사람들도 관심가지고 지원해준다’를 넘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공간을 운영하고 우리문제를 해결해간다’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이동노동자 의제 캠페인, 공익적 역할 부여 등.
- 전체 사업의 구상과 계획, 자문, 평가의 과정에서 협력체계 구축.
- 2단계로 민관협력 방식의 공동운영 고려. 노동조합 내지 당사자단체, 컨소시엄에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해당 단체에서는 이용자에게 시와 공동계획한 상담·교육·커뮤니티 지원서비스를 제공.

4. 개방적 운영으로 네트워크 촉진

○ 이동노동자 의제 중심 네트워크 필요

- 이동노동자 당사자의 의제, 지역의 노동복지 의제 등이 상호

- 서초 쉼터의 경우 당사자단체 및 이용자들과 상시, 사업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LH마이홈센터, 도심권50+ 센터) 그러나 양자 간의 교류나 관계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삶의 중심의 지역사회경제 시스템 촉진

-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2015)에서 대리기사 79%가 이직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미약함.(19.8%)
- 이동노동자의 삶의 변화라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지향을 쉼터가 모두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디딤돌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임.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별사업들이 배치되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업의 주체들이 공유하고 갱신해나가야 함.

5. 소결 : 삶을 정상화하는 공간

참고문헌

- 황덕순 외, 2016, 『고용관계의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6.
- 이철, 2017, “제2의 기계시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그리고 노동의 미래: 이번에는 정말 노동을 탈바꿈할까?”,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17-01.
- 조돈문 외, 2016,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 매일노동뉴스.
- 이철·김주환·이영수, 2015,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015-03.

토론문

하나의 진전, 희망을 위하여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

밤을 낮 삼아 일하다보니 몸도 좋지 않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술 드신 손님들 심기운전도 해야 하니 만만치 않은데, 콜센터들 갑질/부당행위에 농락당하기 일쑤고, 우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기댈 언덕이 되 줘야 할 정부기관들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캄캄한 밤에 어디선가 홀연히 유령처럼 나타나, 취객을 귀중한 차량과 함께 집 앞에 안전하게 대령한 후 연기처럼 사라지는 착한 대리기사들에게, 노동존중을 외치는 현 정부/정치권은, 노동기본권/노동3권/완전한 4대 보험/대리운전법 만큼은 최소한, 당연히 보장하고 마련해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팟캐스트 방송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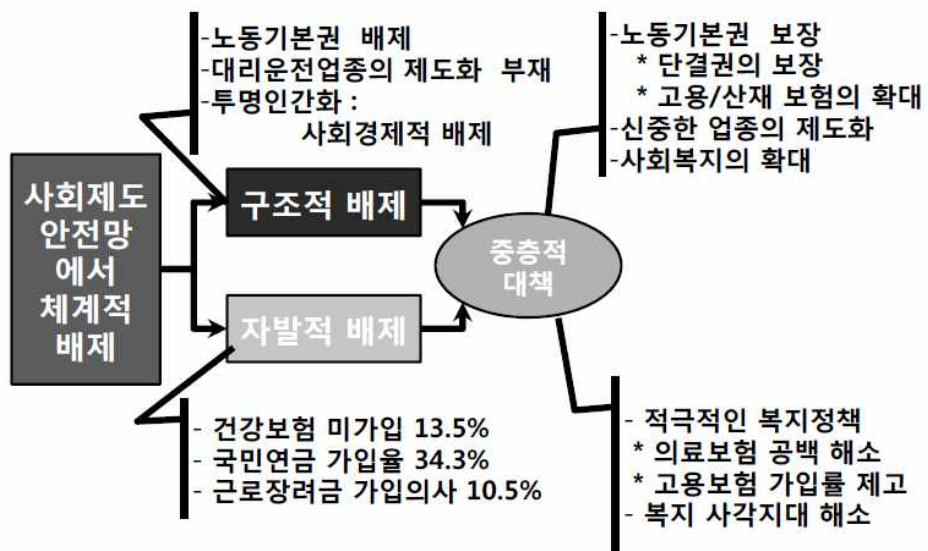
1. 지난 1년 동안 쉼터의 의미는 ?

1) 작은 경험, 작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본다.

○ 경험 하나, 고시원에서 아파트로 ;

- 확대되는 서울시의 선진적인 공공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요자와 결합이 되지 않는 미스 매칭

[대리운전기사의 기본권의 체계적 배제]



- 웹터 상담 vs 구청 상담

○ 경험 들, 졸린 눈을 비비며 인문학 강좌 ;



- 체계적 배제와 자발적 착취를 넘어 삶으로, 희망의 단초를 만들rl

○ 두발로 열심히 살아온 나날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의 삶
; 자기부정을 넘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 어느새 친숙해 진 ‘이동노동’

- 특수고용과 이동노동
- 대리운전과 감정노동

85.8%가 손님으로부터 폭언·폭행·위협을 경험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 33.3%, 자력 해결 24.7%, 39.4%는 그냥 참고 넘긴다

2. 한밤의 우렁각시, 한국사회에서 대리기사는 누구인가 ?

○ 한국사회에서의 대리운전기사는 누구인가 ?
- 어떤 운전노동자의 운명 ;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파견노동자에서 사장님(?)으로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대리운전기사 ;

○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발달되는 한국사회의 대리운전

- 알콜에 의존하는 사회 풍토
- 낮은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 통신기술의 발달

○ 4차 혁명, 플랫폼 노동 그 안의 대리운전

○ 외국의 사례

- 제도화로 나간 일본의 사례
- 공공서비스로서의 대리운전
- 영국의 사례
- 우버의 사례

캘리포니아와 메사추세츠 주의 우버기사 38만 5천명에게 1억 달러 지급명령

3. 현실의 문제

○ 산재보험을 통해 본 숨겨진 코드

<2012-2016.7 특수형태근로자 직업별 산재보험 미가입자 현황>

구분	1. 골프장캐디			2. 보험설계사			3. 학습지교사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2012	22,398 (96.7%)	764 (3.2%)	23,162 (100.0%)	300,328 (91.2%)	28,852 (8.7%)	329,180 (100.0%)	55,248 (93.1%)	4,056 (6.8%)	59,304 (100.0%)
2013	23,159 (95.8%)	991 (4.1%)	24,150 (100.0%)	306,419 (91.6%)	28,025 (8.3%)	334,444 (100.0%)	53,837 (91.9%)	4,737 (8.0%)	58,574 (100.0%)
2014	24,307 (95.5%)	1,135 (4.4%)	25,442 (100.0%)	300,483 (91.6%)	27,426 (8.3%)	327,909 (100.0%)	54,063 (91.4%)	5,060 (8.5%)	59,123 (100.0%)
2015	24,572 (95.8%)	1,076 (4.1%)	25,648 (100.0%)	307,166 (91.6%)	27,931 (8.3%)	335,097 (100.0%)	54,267 (90.8%)	5,445 (9.1%)	59,712 (100.0%)
2016.7	26,509 (94.2%)	1,616 (5.7%)	28,125 (100.0%)	307,641 (90.6%)	31,656 (9.3%)	339,297 (100.0%)	55,307 (89.6%)	6,352 (10.3%)	61,659 (100.0%)

구분	4. 택배기사			5. 퀵서비스기사			6. 콘크리트믹스트럭차차기사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미가입자	가입자	합계
2012	7,027 (56.5%)	5,392 (43.4%)	12,419 (100.0%)	1,001 (39.0%)	1,563 (60.9%)	2,564 (100.0%)	8,192 (71.8%)	3,203 (28.1%)	11,395 (100.0%)
2013	7,208 (60.3%)	4,729 (39.6%)	11,937 (100.0%)	1,120 (43.7%)	1,440 (56.2%)	2,560 (100.0%)	7,848 (69.6%)	3,412 (30.3%)	11,260 (100.0%)
2014	7,478 (65.8%)	3,883 (34.1%)	11,361 (100.0%)	1,202 (44.3%)	1,510 (55.6%)	2,712 (100.0%)	7,265 (66.8%)	3,595 (33.1%)	10,860 (100.0%)
2015	7,604 (66.9%)	3,749 (33.0%)	11,353 (100.0%)	1,620 (48.9%)	1,691 (51.0%)	3,311 (100.0%)	7,548 (62.1%)	4,605 (37.8%)	12,153 (100.0%)
2016.7	7,725 (70.6%)	3,209 (29.3%)	10,934 (100.0%)	1,890 (48.7%)	1,988 (51.2%)	3,878 (100.0%)	7,333 (59.3%)	5,028 (40.6%)	12,361 (100.0%)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가입율 10% 미만
- 산재보험의 확대 시행여부에 대한 인지도에서 55.7%가 ‘전혀 모르고 있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두 가지 공약
 - 노동기본권 보장과 쉼터 설치
- 창원의 사례
 - 운영지원의 미비로 오히려 골병 드는 대리기사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다시 한 번 일구는 우리의 삶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 촛불의 광장에선 대리기사
 - 농활을 가는 플랫폼 노동자

5. 제안

- 시혜가 아니라 의무로서 쉼터
 - 이종의 배제 특수고용, 사회적 배제의 극복 주체로서 정부(지자체)의 역할
- 일보전진
 - 모색에서 확장으로, 유행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는 대리운전노동자
 - 쉼터에서 모색된 희망을 현장으로 확장
- 대리운전노동자, 서울 거버넌스
 - 방치 속에 달리는 폭주버스, 셔틀버스
 - 사회적 약속, 표준약관
 - 공공 플랫폼을 꿈꾸다
- 내가 서기 위하여, 나만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으로
 - 따로 또 같이
 - 효율성과 가용성의 균형과 제고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문

남우근 (공인노무사)

○ 이동노동자 쉼터의 필요성 확인

-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필요. 이동노동자 쉼터는 제도적 권리 배제라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회적 실천 사례임. 당사자들의 노동권을 옹호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함.
-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이동노동자의 과편화, 개별화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정주노동’ 중심의 노동권적 인식을 ‘이동노동’으로 확장하는 계기이기도 함.

○ 쉼터의 확대 필요성(공간, 직종)

-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의 확대가 필요함. 2~3개 자치구를 묶어서 권역화할 필요가 있음. 발제문에서 언급한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직종별 특수고용 규모 추정치는 146만 명임. 이 중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가 적어도 30~40만은 될 것임.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쉼터 거점의 확대가 필요함.
- 직종의 확대도 필요함. 발제문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배달/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가 우선적인 확대 직종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별도로 쉼터 확대 추진 중)

○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 발제문에서 언급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쉼터 기능과 지역노동권익센터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것도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적절한 업무 구분과 상근자의 경험축적이 뒷받침된다면 두 기능간의 혼선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상근자의 전문성 확보 및 활동가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함.

○ 쉼터 기능의 심화

- 쉼터 기능과 관련해서 맹아기인 휴게공간 제공(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쉼터)과 상담 및 교육 기능 제공(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을 포함한 서비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1차적일 것임.
-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통, 연대, 실천적 네트워크 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운영주체도 지원조직 중심에서 당사자조직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야 함.
- 쉼터가 육체적 휴식과 개인적 필요에 따른 상담, 교육을 넘어서서 소모임 결성을 통한 당사자 중심성이 높아지게 되면 지역과의 소통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임.

쉼터 기능 구분	운영 방식	운영 주체
<맹아기> 휴게 공간	서비스 모델	주 : 지원조직 부 : 당사자조직
<확장기> 개인적 욕구에 기반한 상담 및 교육		
<성숙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도모	소통, 연대, 네트워크 모델	주 : 당사자조직 부 : 지원조직
<완성기> 이동노동의 시민권 확보		

○ 이동노동자 쉼터의 법제화 추진

- 현재 다수의 이동노동자가 해당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포괄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함.

- 하지만 포괄적인 노동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례조항을 통해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조항에 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이동노동자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재법과 유사하게 특례조항을 도입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후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이동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근거법률을 만든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쉼터 설치가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 등 이동노동종사자에 대해 이동 및 대기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첨부자료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2016년도 사업평가

추진배경

- 2015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
-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사업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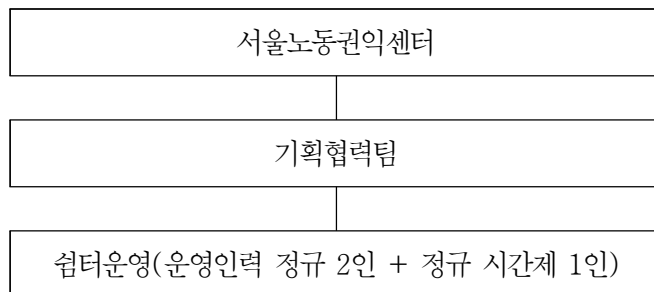
1.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와 운영

- 쉼터 운영시간 : 월요일 18시부터 토요일 05시까지 주5일 운영,
2016년 5월부터 종료시간을 06시로 연장 운영

구분	시작	종료	비고	
운영시간	18시	06시	12시간	
근무 시간	직원 1	16시 30분	00시 30분	7시간(1시간 휴게시간)
	직원 2	22시 30분	06시 30분	7시간(1시간 휴게시간)
	직원 3	00시 30분	06시 30분	5시간
사업	쉼터와 기초상담	18시	06시	12시간
	전문상담(월 4회)	18시	20시	2시간
비고	기초상담을 전문상담으로 직접 연계, 2인 1조 근무 최대한 보장			

○ 운영구조와 체계

- 운영구조



2. 홍보사업

- 사업내용 : 쉽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언론홍보, 개소식
- 사업절차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기획 → 외부제작 → 쉽터 비치와 외부설치
 - 온라인·언론홍보 : 쉽터 사업성과에 대해 권익센터와 이동노동 관련 온라인 카페 등 게시 또는 보도자료 배포
 - 개소식 : 개소식 초대 → 개소식 행사 진행
- 사업방법 : 홍보물 제작, 온라인·언론홍보, 개소식 홍보, 상담·교육사업 홍보
- 사업결과
 - 쉽터 누적 이용자 현황(3/18~11/30) : 총 8,089명
 - 하루 평균 이용자 : 3월 35명 → 11월 60명
 - 월 평균 회의실/교육실 대관 횟수 : 5회
 - 언론 인용 횟수 : 총 89건 (개관 소식 27건, 노동존중 특별시 발표소식 중 쉽터 관련 18건, 쉽터 운영시간 연장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운영 관련 11건, 쉽터 지역 확대 관련 6건, 쉽터 이용률 관련 10건, 인본백서 관련 10건, 그 외 주간지 등 잡지 3건, 공중파 TV(YTN, SBS, KBS) 뉴스 3건, TBS 집중리포트 1건)

3. 상담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이동노동종사자의 업무 및 생활상의 고충에 대한 기초상담 및 건강, 재정, 법률과 관련된 전문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 9월 20일부로 LH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주거복지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

○ 상담사업 시스템

절차	주관	내용
기본(1차)상담	센터	매뉴얼에 따라 전 영역에 대한 기초 상담을 진행 후 영역별 전문상담 및 지원시스템 연계 여부 판단
전문(2차)상담	센터·협력기관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에 의한 집단 혹은 개별 상담 진행 후 지원시스템 연계 방안 판단
지원시스템	협력기관·센터	협력기관에 의뢰하여 지원시스템 가동, 센터는 지원 진행 점검 및 관리

○ 상담결과

- 3~11월 심터 기초상담 현황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상담 횟수	3회	2회	3회	3회	3회	-	-	9명	2명

- 기초상담 내용은 대리업계 기초정보(4건), 금융복지 상담(5건),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복지상담(3건), 주거 상담(8건), 창업 상담(1건), 법률 및 보험문제(4건) 등임. 일일 방문자 수가 늘고 고정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기초상담 신청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임.

- 3~11월 심터 전문상담 현황

1-1) 법률상담(6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연계

수요	일자	예약자	참가자
1차	7/5	5명	2명
2차	8/2	8명	5명
3차	9/6	5명	6명
4차	10/4	5명	2명
5차	11/1	6명	9명
6차	12/6	5명	1명
합계		34명	21명

1-2) 법률상담 분석

상담내용 구분		건수	비율(%)	내용
대리기사 권익	업체 관련 문제	6건	23%	프로그램사 횡포, 사고 시 보험처리, 대리기사 처우 개선 등
	업무 관련 문제	4건	15%	대리운전 중 폭행, 사고 문제 등
행정 문제		5건	19%	대부분 개인 채무 문제
재산 문제		8건	31%	부동산, 의료사고, 상속 등 다양
기타 민사 문제		3건	12%	폭행,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 건
전체 건수		26건	100%	

- 법률상담 중에서는 대리기사 권익 관련 내용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산문제, 행정 문제, 기타 민사문제 순으로 나타남. 대리기사 권익관련 상담 중에서도 업체 관련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사의 횡포, 보험처리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에게 불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선을 요구하기도 함.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리운전 중 일어나는 폭행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재산 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도 두 번째로 많았으며 행정문제는 대부분 채무(예:파산) 상담이었음.
- 법률 상담 처리는 대부분 법리(절차) 설명, 변호사의 소견 전달, 법률적 가능 여부 안내를 기본으로 진행. 대리기사 업체 및 프로그램사의 횡포와 관련된 상담의 경우, 현재 상담사(변호사)와 대리기사 단체가 함께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음.

2-1) 금융복지상담(7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수요	일자	예약자	참가자
1차	5/24	14명	7명
2차	6/14	13명	5명
3차	7/12	15명	9명
4차	8/9	8명	3명

5차	9/8	4명	4명
6차	10/11	10명	6명
7차	11/8	15명	7명
합계		79명	41명

2-2) 금융상담 분석

상담내용 구분	건수	비율(%)	내용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17건	41%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구분 지원
파산면책	10건	24%	파산면책 서류접수 지원, 기관 연계
대출	7건	17%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안내
주거	6건	14%	관할 주민센터 연계, 주거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
상속	1건	2%	현장 안내 및 법률상담 연계
재무관리	1건	2%	수입 지출 분석, 가계부 활용 권유
전체 건수	42건	100%	

- 금융상담 중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파산면책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내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음. 대출과 주거문제 상담이 뒤를 잇고 있으며 상담 건수는 적지만 상속문제나 재무관리를 문의해온 이들도 있었음.
- 금융상담은 내담자가 의뢰해온 상담 내용과 실제 상담 내용, 그리고 처리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특성이 있음. 예를 들어 내담자가 대출을 문의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파산면책을 안내받아 문제가 해결됐다면 파산면책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위 통계에서는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상담 내용을 분류하였음. 상담 과정은 먼저 개인회생 대상과 워크아웃 대상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파산의 경우 서류접수를 돕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관기관에 연계, 처리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 대출과 주거복지 등은 관련 프로그램과 제도를 소개.

3-1) 건강검진 및 스트레칭교실/마음튼튼교실(8회) - 서울근로자건강

센터 연계

수요	일자	프로그램	예약자	참가자
1차	4/27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	7명	6명
2차	5/17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14명	7명
3차	6/21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7명	4명
4차	7/19	기초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교실	8명	7명
5차	8/16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2명	5명
6차	9/20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10명	8명
7차	10/18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4명	10명
8차	11/15	기초건강검진 및 스트레칭 교실	15명	10명
합계			63명	57명

3-2) 건강상담 분석

구분		참여자 (명/비율%)	비고
건강생활습관	흡연	비흡연	10(25.0)
		금연(과거흡연)	10(25.0)
		현재흡연	20(50.0)
	음주	안마심	19(47.5)
		주1회 이내	5(12.5)
		주2회 이내	16(40.0)
	규칙적인 운동	안함	32(80.0)
		주1회	0(0)
		주2회 이상	8(20.0)
질병력	본인	고혈압	5(12.5)
		당뇨병	6(15.0)
		이상지질혈증	4(10.0)
		기타	1(2.5)
		없음	24(60.0)
	가족	고혈압	8(20.0)
		당뇨병	6(15.0)
		기타	5(12.5)
	없음	24(60.0)	

- 건강 관련 특성을 분석해보면 참가자의 흡연율은 50.0%로 일반적인 성인 남성 흡연율 42.0%보다 높았음. 음주율은 50.0%이며 주2회 이상 위험 음주자가 40.0%(16명)로 나타남. 주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은 20.0%(8명)로 낮게 나타남. 참가자중 고혈압 2명(25.0%), 이상지질혈증 1명(5.5%), 당뇨병 3명(16.6%)으로 관찰되었으며 질병력이 없는 사람은 13명(72.2%)으로 나타남.

구분		참여자	비고
수축기혈압(mmHg) *N=60	120미만	14	정상
	120~139	38	경계
	140이상	8	위험
이완기혈압(mmHg)	80미만	6	정상
	80~89	38	경계
	90이상	16	위험
식후혈당(mg/dL) *N=58	140미만	34	정상
	140~199	12	경계
	200이상	12	위험
총콜레스테롤(mg/dL) *N=53	200미만	33	정상
	200~239	19	경계
	240이상	1	위험
중성지방(mg/dL)	150미만	29	정상
	150~199	8	경계
	200이상	16	위험
HDL콜레스테롤(mg/dL)	60이상	3	정상
	40~59	28	경계
	40미만	22	위험
LDL콜레스테롤(mg/dL)	130미만	37	정상
	130-159	10	경계
	160이상	4	위험

- 임상검사 결과 혈압측정에 참여자 39명이 60회 측정된 결과 중 고혈압 진단기준인 수축기혈압 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이상인 고혈압자는 9명(23.1%)임. 혈당 검사자 34명이 58회 검사한 결과 당뇨병 진단기준인 200mg/dL이상으로 측정된 자는 6명(17.6%) 이었으며 이중 1명은 당뇨병 치료중인 자임. 혈중지질 검사자 32명이 53회 실시하였으며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24명(75.0%)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금식상태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므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따름.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비고
건강군 (위험인자 0개)	1	4.2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주의군 (위험인자1~2개)	11	45.8	정기적인 혈압, 혈당, 혈중지질 검사와 건강한 생활습관관리 필요
위험군 (위험인자 3개 이상)	12	50.0	전문의 진료를 통한 건강상태 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필요

- 혈중지질검사까지 진행한 쉼터 건강검진 참여자 24명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인 혈압, 혈당, 혈중지질, 흡연, 복부비만, 규칙적인 운동 실천정도를 가지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였음. 위험인자가 한 개도 없는 건강군은 1명 이었으며, 위험인자가 1개에서 2개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군은 11명 (50.0%), 위험인자가 3개 이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자는 12명(50%)으로 평가되었음.

4-1) 주거상담(3회) - LH마이홈상담센터 연계

수요	일자	예약자	참가자
1차	9/27	4명	4명
2차	10/25	7명	9명
3차	11/22	9명	3명
합계		20명	16명

4-2) 주거상담 유형분석 (30명 기준)

구분	건수	비율(%)
임대주택 상담	29	97%
주거급여 상담	1	3%
총 인원	30	100%

4-3) 주거상담·교육 진행 후 후속 상담 진행 내용 분석 (30명 기준)

구분	건수	비율(%)
상담센터 직접 방문	13	43%
전화상담	14	47%
재 상담 진행	27	90%

-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과 쉼터 기초상담을 통해 전문상담 참여인원 총 34명임. 이중 상담 없이 교육프로그램에만 참여한 인원이 4명이며 이를 제외한 3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이들 중 7명이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음. 진행 횟수(3차)에 비해 참여율이 높아 주거복지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음.

4. 교육사업

○ 사업내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보 이동노동자를 위한 직무교육, 직업 또는 업무상 발생하는 건강 문제, 삶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법률문제, 나아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음.

- 교육사업 현황

1) 주거 교육(3회)

수요	일자	예약자	참가자
내부 교육	9/27	8명	8명
1차	10/25	17명	20명
2차	11/22	6명	5명
합계		31명	33명

2) 전직 교육(1회)

- 11월 후반부에 강좌 개설
- 도심권 50플러스센터의 '인생이모작 입문 교실' 중 강좌를 개설하도록 함.
- 대리기사 10여분에게 설문 진행.
- 개설 강좌 제목
: (1) 노후준비! 트렌드(미달취소) (2) 금융상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진행)
- 참석 : 7명

3) 인문학 교육(1회) '김민섭과 함께하는 인문학산책'

- 예약 : 30명
- 참석 : 15명
- 내용 : 인문학 강의, 설악산 단풍놀이

5.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 사업내용

- 서포터즈 모집(11/11 발대식) 및 운영
- 대리운전기사 직무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에 위탁 제작,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

- 주중 심터 교육실 대관

월	대관 횟수	내용
3월, 4월	3회	대리기사 단체 내부 회의 대리기사 직무교육
5월	7회	
6월	6회	
7월	3회	
8월	7회	
9월	3회	
10월	5회	
11월	4회	
12월	2회	

- 주말 심터 교육실 대관

월	대관 횟수	내용
10월	1회	대리기사 단체 회의 및 교육
11월	5회	
12월	8회	

6. 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 사업

○ 사업내용

- 여성휴게실 별도 설치(8월부터 마련 운영, 주 2~3명 이용 중)
-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수도권 대형 지도 부착
- 스마트폰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12/9(금)까지 총 52포트 설치)
- 책장 설치, 기증도서 비치
- 04:00~06:00 뉴스 상영
- 우산대여사업 시작(대여: 총 54회)

기간	대여 현황	기간	대여현황
8월	18건	11월	20건
9월	5건	12월(12/20 현재)	9건
10월	11건		

□ 평가

○ 전문가 평가

- 상담사업 홍보를 위해 성공사례를 모아 홍보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와 홍보 동영상도 만들면 좋을 것임.
- 금융이나 주거 관련 교육은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나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인문학 산책(교육)은 유익했음. 내년에 2회 진행했으면 함.
- 쉼터가 기존 단체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보험 문제나 주요 이슈를 정해서 토론회를 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함. 이슈와 정책 플랫폼 역할, 대리기사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함.
- 대리운전기사의 이직과 전직, 취직, 창업을 주제로 연구 의뢰 필요. 당사자들이 행복해야 함. 운동, 쉼, 취미생활, 여유로운 삶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갑질하는 대리회사로 인한 불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요금 현실화가 중요한 문제임. 지자체와 기본요금과 구간요금을 정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보험료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함. 대리기사의 삶 전반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여러 주제를 아울러 다루자.
- 전국적으로 쉼터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 전국 쉼터 네트워크도 필요함.

○ 이용자 평가(<쉼터이야기> 공모전 응모 의견 모음)

취지 : 쉼터 이용하는 이동노동자가 쉼터를 평가하는 공모사업. 쉼터의 개선
활용방안과 이용경험, 상담 및 교육 참여 내용을 이동노동자에게 물음.
참여기간 : 12/1(목)~12/9(금)
참여인원 : 32명 (보조배터리 기념품 증정)

- 쉼터 환경 개선
 - 1) 쉼터가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휴식 했으면 함. 서로 배려하고 이용규칙을 잘 지켰으면 함.
 - 2) 수면실 혹은 휴식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조성. 간이침대를 두고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면 함.
 - 3) 운영시간을 1-2시간 늘리거나 낮 시간 운영에 대한 건의 있음.

토요일 운영에 대해서도 건의 있음. 비용이 문제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라도 운영했으면 한다고 건의함.

- 4) 기타 환경 개선 의견으로, 음식을 비치하고 판매하거나 컵라면,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취식용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함. TV설치, 치약 칫솔을 비치해 두는 걸 건의함.

- 교육사업 제안

- 1) 대리기사 직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면 함.
- 2) 스트레스 관리, 건강, 실생활 법률, 외국어 관련 교육 제안.
- 3) 교육사업을 새벽시간 04~05시에도 개설했으면 함.

- 기타사업 제안

- 1) 신용상의 문제가 많은 대리기사가 많으므로 소액대출사업 진행 제안함.
- 2) 대리운전관련 정보를 핸드북 형식으로 배포하는 사업 제안
- 3) 쉼터를 중심으로 등산, 족구, 독서회 등 동호회 운영
- 4) 대리기사 토론회, 인문학 강좌, 영화상영, 토크콘서트 진행.
- 5) 외곽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쉼터로 개방했으면 함.
- 6) 쉼터가 업체의 불합리함에 공동 대응하는 기능을 했으면 함.

- 쉼터 사업 평가

- 1) 쉼터 이용을 인해 업무가 편해지고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음.
- 2) 쉼터를 통해 동료 기사를 많이 알게 되고 정보도 많이 알게 되어 긍정적.
- 3) 법률상담이나 주거 상담을 통해 생활의 힘든 문제나 주거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의견.

○ 상근 간사 평가

- 조승화 :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 및 수요조사가 필요함. 이동노동자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 내년에도 공모사업 필요.
- 방승범 : 쉼터사업은 당사자의 필요가 분명한 사업임. 이용률이 높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었음. 내년엔 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며 표준요금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배병호 : 이동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주요 사업을 기획·실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산 대여사업, 인문학 산책 등 부차적이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고 인문학 산책의 경우 이용자들의 추가 요구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러한 종류의 부가 사업의 필요성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